

남해안은 온통 '거북선천지'

전남도·경상도·여수·사천·통영시 등 5곳 '역사 관광사업' 이유 너도나도 제작 추진 예산 낭비... 외국 관광객 혼란 우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있는 몇몇 지자체단체가 너나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북선 관광 사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우리 역사를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명량대첩 500주년 기념 사업' 용역 결과 보고를 통해 모두 40억 원을 들여 실제 거북선의 1.25배 크기인 길이 43m, 폭 13m, 최대 속력 20노트, 승선 인원 200명 규모의 거북

선을 건조키로 했다. 전남도는 1년 가량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말부터는 거북선을 울포목에 띄워, 명량대첩을 기념해 한 울포목의 거센 물살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오는 2011년까지 1천44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될 '이순신 프로젝트'에도 거북선 제작 및 운항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돌산읍 돌산대교 아래 거북선 모형의 배를 정비시켜 놓고 관광객들에게 내부를 공개하고 있는 여수시도 투자 유치를 통해 거북선 형태의 또 다른 대형 유람선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남 사천시시는 지난 2001년 11억여 원을 투입, 길이 19.58m에 98명이 탈

수 있는 관광 유람선 '거북선호'를 제작했으며 현재 40명 이상 탑승시에 한해 운항하고 있다.

또 통영시는 지난 1990년 서울시가 제작해 한강에 띄웠던 거북선을 지난해 11월 기증받은 뒤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한산대첩 축제 기간 동안 운항하고 있다.

최오주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거북선이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누구든지 거북선 형태의 유람선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역사성과 사업성 등을 함께 감안하지 않고 충무공과의 인연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거북선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파트 1층 정원 개인소유는 불법"

경기도 행정심판위 결정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와 입주인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 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정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A씨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사실이 없다"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식초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남뉴스

카드결제 앞서서 서명만으로 무선 액정화면 결제 '이지패드' 가맹점 확대

이제 소비자들이 카드결제를 할 때 직접 카운터에 가지 않고 제 자리에서 종업원이 갖다주는 무선 장치의 액정화면에 서명만 하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분실이나 복제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카드 전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카드분실 전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세계 최초로 무선으로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이지패드(Easy Pad)'를 서울, 경기지역 2만여 가맹점에 설치했으며 올 12월까지 10만 이지체크 전가맹점에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큰 대형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앉은 자리에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은 그동안 자체 전산실을 갖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서는 데이터 처리속도 및 보안처리 기술 미비로 무선결제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새로운 압축기술을 개발해 무선으로도 기존의 신용카드 처리속도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바이오코리아2006' 전남도 투자설명회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06'이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전시회, 국제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으로 구성돼 8일까지 계속되며 국내외의 4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해외바이어 및 투자자 300여명 등 바이오산업 관계자 2만여명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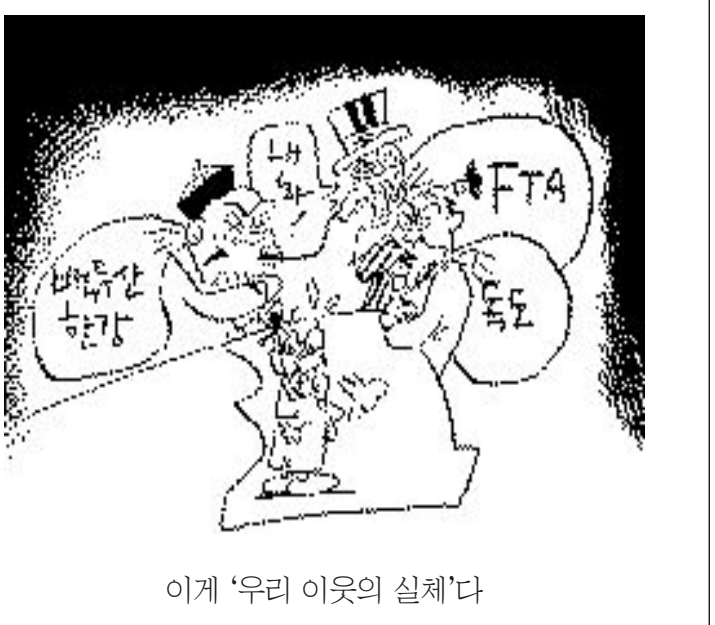
바이오 산업을 전락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남도도 행사장에 전남도 투자유치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7일 오후 박준영 전남지사도 참가 기업들을 상대로 전남 투자 환경을 알리는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트라이안 비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이 6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남뉴스

빛의만평



이제 '우리 이웃의 실체'다

외환銀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할애포인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외환은행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을 지로2가 본사의 IT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재정감독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의 비자금 조성 관련 관련 물증을 찾기 위해 본사의 IT사업본부와 LG CNS 금융사업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 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재직할 당시인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 200억

원내의 차세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전산장비 납품 비용을 과다계산하거나 직접 공금을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돼 LG CNS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 지점이 많은데 설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나"라고 말해 비자금 규모가 막대한 수 십억 규모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비자금이 은행 매각 과정에서 로비 자금으로 흘러나갔거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연남뉴스

한국 영아 사망 세계 최저 수준 1천명당 3명꼴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6일 발간한 '2006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년 미만 영아의 1천명 대비 사망 수치는 영아사망률에서 우리나라는 3명으로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최저 사망국으로 꼽혔다.

이에 반해 시에라리온은 161명, 니제르는 148명, 라이베리아는 135명이 나왔다. 북한은 43명으로 93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32위, 북한은 67명으로 60위에 그쳤다.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 63.9세, 여성 68.4세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시, 수도권 9개 광산업체와 140억 규모 투자·연구협정 체결

광주시가 수도권 광산업 업체 9곳과 투자유치협약 및 연구개발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산업 투자환경설명회를 열어 LED제조업체인 (주)루멘스와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인 (주)오션텍 등 9개 업체를 상대로 1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 교환 및 연구개발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등을 맺은 업체는 (주)루멘스(경기 광주)를 비롯해 (주)옵티시스(경기 성남)·(주)이노센코리아(서울 금천구)·(주)오션텍(경기 군포

시)·(주)코립 인터마켓(서울 송파구) 등 9곳이다. 이번 MOU체결 등으로 2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주력 산업인 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15만여명에 이르는 광산업단지 등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현황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광산업을 대표적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는 2010년에는 생산액 7조원, 고용인원 5만명 창출을 목표로 '아시아 최고의 광산업 메카'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 박광태 광주시장 수상

박광태 광주시장이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2006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에서 광역단체장 공공경영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과 현지공장 건설,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 등 글로벌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 제품·서비스를 선정해 200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번 수상은 민선 3기 광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역경제살리기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산업 육성과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상식은 8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행안내

- ▲나사도산악회 및 백담정원... 011-602-525-7223
- ▲공군전우회산악회... 011-9602-7088
- ▲삼각산악회... 011-644-2730
- ▲팔성산악회... 011-605-3477
- ▲청운산악회... 011-605-3477

- ▲출입산악회... 011-605-5034
- ▲광주자연보호산악회... 011-608-7827
- ▲광주북대야산악회... 011-602-2002
- ▲오산악회... 011-641-0254
- ▲울림산악회... 011-602-3515
- ▲광주등산클럽... 011-604-9921
- ▲광주도요산악회... 011-604-4267
- ▲상무관광산악회... 011-608-4267
- ▲산무관광산악회... 011-608-4267
- ▲산무관광산악회... 011-608-4267
- ▲산무관광산악회... 011-608-4267

우레텍 공법의 적용분야

- 건축주거, 업무시설분야: 주택, 상가, 공동주택, 문화재, 성(城), 고건축 등 기초, 기둥, 바닥슬래브, 참회복원 및 강화
- 토목시설분야: 고속도로, 공항철도로, 철도, 교량, 항만, 지하철, 댐, 공공시설물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건축산업시설분야: 공장바닥, 각종 불-유류탱크, 마트, 사일로, 대형매장, 대형물류 창고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누수분야(공동): 지하공동구, 배관슬래브, 지하철, 터널, 댐, 농수로, 각종맨홀, 하수구 등 지수

무담보 무보증

기계당좌어음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건물임대

- 1층 225평
- 2층 225평
- 3층 225평
-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부진로 80m 도로변,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독일보정기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독일보정기... 02-222-1510, 011-605-5106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레텍공법은 핀란드에서 개발한 국제특허공법으로 30년된 기술의 노하우!

우레텍 공법의 특징

- 지내력500%까지 증강복원
- 작업공정 최단시간(수시간에서 수일)
- 기존시설물 이동없이 생활불편 최소화
- 물질 보증기간 10년

우레텍 공법의 적용분야

- 건축주거, 업무시설분야: 주택, 상가, 공동주택, 문화재, 성(城), 고건축 등 기초, 기둥, 바닥슬래브, 참회복원 및 강화
- 토목시설분야: 고속도로, 공항철도로, 철도, 교량, 항만, 지하철, 댐, 공공시설물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건축산업시설분야: 공장바닥, 각종 불-유류탱크, 마트, 사일로, 대형매장, 대형물류 창고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누수분야(공동): 지하공동구, 배관슬래브, 지하철, 터널, 댐, 농수로, 각종맨홀, 하수구 등 지수

우레텍코리아 | 광주·전남지사 |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통진엔지니어링(주)가 하는 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일반건설업, 구조검토, 지질조사

· 자세한 안내 및 문의: ☎ 062-571-3001, 2 · FAX: 0551 · HP: 011-604-0287 · http://www.tongjin96.co.kr